



이 학 영 | 이학박사/고려대 수생태해설사 교수
우리협회 하천환경위 부위원장
(koreafish@hotmail.com)

이학영의 자생어 칼럼 25 우리 하천 우리 물고기 물 속의 고양이 - 꾸구리

학 명 : *Gobiobotia macrocephala*

지역 방언 : 갱이눈, 봉사고기, 갱이고기, 돌나리 등

분 류 : 잉어목 모래무지아과

자생 수역 : 한강, 임진강, 금강 수계 상·중류 일부 수역

주 서식장소 : 물이 맑으며 흐름이 빠르고 자갈이 깔린 곳

번 식 기 : 5~6월

크 기 : 12cm 내외

이번 호에 소개하는 꾸구리는 잉어목 모래무지아과에 속하는 특이한 생태 습성을 가진 물고기로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사투리로 불리고 있다. 위에 소개한 외에도 소경매자, 멍텅구리, 돌매자, 돌도리 등 하나 같이 특이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꾸구리를 별난 물고기라고 한 것은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다른 어종들에게는 전혀 볼 수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머리 상단부에 있는 눈에는 개구리 눈처럼 피막으로 된 눈꺼풀이 있다. 이 눈꺼풀은 밝은 곳에서는 오므라들어 들어오는 빛을 적게 하고 어두운 곳에서는 피막을 넓혀 빛을 더 모아주는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에게 잡혀 물 밖으로 끌려나와 눈이 부시면 피막을 닫아버려 이를 보고 〈봉사고기〉, 〈소경매자〉라고 명명해준 것

은 눈썰미 좋은 현지인들이 꾸구리의 특징을 잘 파악한 것이라 박수를 쳐주고 싶다.

여기에 추가해 필자는 자연 생태 현장 강의시 꾸구리를 〈여울고양이〉라고 소개하는 기회를 가끔 갖는다. 가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장 탐사시 희소종 꾸구리를 만나는 겁나게 재수 좋은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밝기를 바꾸어주면서 이 물고기 눈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고양이의 눈동자를 쉽게 연상할 수가 있다. 고양이 눈동자는 빛의 밝기에 따라 수시로 크기가 바뀌어 어두운 밤에도 쥐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있는 상식이다.

또한 고양이의 입 주위에 수염이 있듯이 꾸구리도 물고기치고는 많은 8개의 입수염이 달려 있다. 낚시계의 스타인 붕어에게는 하나도 없고 민물고기의 왕이라는 잉어에게도 기껏 4개밖에 없으니 덩치도 작은 녀석이 ‘어함’하며 더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 고양이의 입수염이 장애물 확인, 먹잇감 사냥에 큰 역할을 하듯 꾸구리의 수염도 이러한 임무를 맡는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 정작 〈꾸구리〉라는 방언으로 불리는 어종을 현지에서 탐문조사해 보면 이들은 사나운 육식어종인 동사리, 얼룩동사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들 두 종 물고기가 모두 물속에서 ‘꾸구’하고 소리를 내기 때문이

다. 표준 명칭의 원종 <꾸구리>란 녀석은 체구도 작고 물속에 서도 워낙 얄전하게 사는 물고기라서 사나운 동사리 무리에 비유하기엔 거리감이 있다.

꾸구리를 연구 관찰해보면 조심성이 많고 경계심이 강한 물고기임을 알 수 있다. 주로 자갈 틈이나 모래 틈 사이에 숨어 있기를 좋아하고 밝은 곳에 나와 있기보다는 어둡고 외진 곳에 보금자리를 튼다. 몸의 크기가 다 큰 성어도 12센티 내외로 작은 물고기이며 물 바닥에 붙어사는 저서성 어류라 헤엄도 그다지 빠르게 치지 않는다.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는 것도 그다지 적성에 맞지 않은 듯 하여 제 몸 하나 돌 밑자락 작

은 원룸고시원에서 지내기를 좋아하는 물고기다.

나약한 어종이 천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여 살아남아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둔생활도 지혜로운 본능의 발로이리라.

꾸구리 서식처 보존·복원은 2급수 이상 수질에 여울이 일어 산소가 풍부한 곳, 자갈과 모래가 적당히 섞인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은 곳을 조성해줘야 한다.

4대강 사업 때 매스컴에 오르내려 다소 유명세를 탄 별난 물고기 꾸구리는 세계에서 한국에만 사는 특산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보호종이다. 🐟

산 여울 꾸구리

산사 스님

까까 밀린

머리카락

여울 타고 와

꾸구리 입가에 붙었다.

산골 토담집

어린 고양이

졸리는 눈곱 하나

바람 실려

꾸구리 눈에 맺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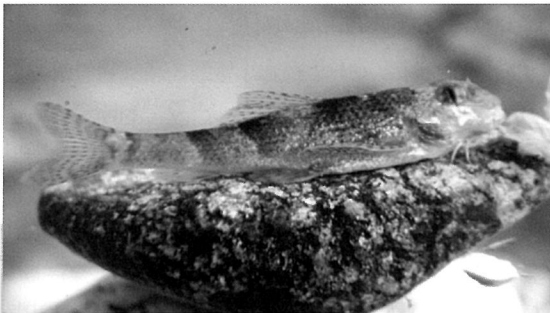
입수염 쓰다듬다

꺼번

잠 오는 눈으로

무슨 꿈꾸리

너 산 여울 꾸구리는



꾸구리 : 돌 위에 달관한 도사처럼 자리 잡은 꾸구리



꾸구리 눈 : 카메라의 조리개, 고양이의 눈동자처럼 빛의 양을 조절하는 특이한 눈 구조를 가진 학문적으로 귀한 몸이다.



꾸구리 수염 : 우리 민물고기 중의 어른인 듯 멋진 수염을 8개 달고 있다.



동사리 : 일반인들은 통상 이 친구를 <꾸구리>로 부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어종이다.